

**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**

보이는 경제학 안보이는 경제학

**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**

회사에 있던 책 중 하나인데 제목이 재미있어서 읽어보았다. (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? 참고로 원제는 Economics in One Lesson으로 한국 번역서 제목 하고는 완전 다름)

**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 
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,  
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  
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?**

단기적으로 유리 가게 주인이 얻은 사업 이익은 양복점 주인의 사업 손실일 뿐이다. 새로운 고용은 일어나지 않았다. 모였던 균중은 단지 빵 가게 주인과 유리 가게 주인 두 사람 간의 거래만을 생각했다. 그들은 잠재적 제3자인 양복점 주인을 고려 대상에 넣지 않았다. 양복점 주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다. (중략) 균중은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.

그러나 '고용창출'을 위해 건설되는 다리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. 일자리 제공이 목적이라면, 필요성은 종속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. (중략) 정부의 지출 담당자는 어디에 다리를 건설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대신, 어디에 다리가 세워질 수 있는지 자문하기 시작한다.

실제로 대출되는 것은 농장이나 트랙터 그 자체다. 현재 존재하는 농장 수는 제한돼 있고 트랙터의 생산도 제한돼 있다. A에게 빌려주는 농장이나 트랙터는 B에게 빌려줄 수 없다.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A와 B중 누가 농장과 트랙터를 얻을 것인가이다.

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A가 직장에서 쫓겨났다. 이 저술가들은 "A를 주시하

라” 라고 주장한다. “A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절대 놓치지 않고 지켜보라.” 그러나 그들은 계속 A만 주시하면서, 이제 막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직업을 갖게 된 B와 기계를 운영하는 직업을 갖게 된 C와 예전의 절반 가격으로 코트를 살 수 있게 된 D를 잊어버린다.

가격은 생산비용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며, 수요는 사람들이 상품을 얼마나 강하게 원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. 공급이 부분적으로 생산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사실이다. 그러나 어떤 상품의 생산에 들어간 과거의 지출비용만으로 그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다.

### **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**

내용이 자유주의 학파에 편향되어 있고 현대 경제학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맞지 않는 내용들도 꽤 있지만 (시장실패, 행동경제학, 정보 비대칭, 외부효과의 미고려) 1946년에 나온 책임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이해할 순 있다. 경제학 원리를 수학없이 기초부터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꼭 추천한다.